

연중 제32주일

라떼라노 대성전 봉헌축일

제1독서 : 예제 47, 1-2. 8-9. 12

제2독서 : 1고린 3, 9-11. 16-17

복 음 : 요한 2, 13-22

숲 정 이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1고린 3, 17)

강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김혁태 신부/주현동 보좌

1. 어렸을 적, 누구나 다 미래성을 쌓는다. 미래는 손끝에서 마음대로 모양이 된다. 그래서 온갖 상상을 발휘해서 자기보기에 훌륭한 창작품을 만들어 낸다. 물이 한 번 덮치면 그만인 것을……

2.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을 쌓는다. 직업전선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살아남는다.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자리를 쌓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만의 성은 더욱 견고해진다. 여기저기 부딪치고 깨지면서 단단해져 간다. 때론 성공하고 때론 실패하면서 그 사이에서 옥석이라고 가려내어 자기만의 가치체계를 구축해 간다. 이런 과정과 반복을 거쳐서 자신의 세계,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만은 절대로 안돼”라는 신념이 성전처럼 자리잡는다.

이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마찬가지다. 한 사회집단은 어디나 역사의 부침과 집단적 경험을 통하여 그들만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 그들과 같지 않은 다른 집단에 대적하기 위한 성처럼……

3. 예수님은 유대인의 성전에서 유다사회가 수백 수십년을 거쳐 잘못 쌓아놓은 가치체계의 성을 보신다. 그것은 지도계층의 기득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힘없는 백성을 내리누르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것은 한바탕 정의의 강물이 덮쳐 싸그리 휩쓸어갈 거실성전이였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요한 2, 19).

4. 그러나 내 마음에 허물어버려야 할 성이 어디 한 두 군데가. 우리 사회에 허물어 없애버려야 할 성들이 어디 한 두 군데가.

소리

이중 잣대

양심수 사면에 대한 김대중씨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없다는 공안당국자의 주장에 따른 파문이 그것이다. 거기다가 정치적인 이해까지 엇갈려 그 내용이 자꾸만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은, 우리나라 양심수 실정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지적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서 문제다. 어째서 똑같은 내용의 발언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느냐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때에는 그 기준이 항상 공정해야 한다. 운동경기도 그러해야 하고, 입학시험도 그러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50일 남은 대통령선거도 그러해야 한다. 이처럼 경기나 시험, 선거처럼 서로를 비교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에는 그 기준이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기준이 아닌 이중 잣대를 문제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중 잣대로 사물을 보려고 한다. 특히 자신(우리 편)과 남(상대 편)을 비교할 때에 그러하다. 그래서 흔히들 말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이처럼 사람들은 제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남에게는 엄격한 모습의 꼴을 보인다. 지금은 위령성월, 내 삶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 보는 때, 이중 잣대로는 재지 말자.

(甲)

숲 정 이 산책



「수입이 너무 강해져서……」

성서의 오솔길

기쁨의 샘

시편(詩篇)

야곱의 우물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엄영애/부안 성당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생활에는 항상 기도가 따랐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시편(詩篇)이라고 부르는 시문(詩文)으로 표현되는 수가 많았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이며 찬미가이다. 각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은 이 시편으로 기도하며 종교적인 심성을 키워 왔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도 시편은 기도문으로써 가장 생동감 있고 널리 읽혀지는 성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놀라운 신적이며,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하느님의 업적을 대할 때 가지는 종교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편보다 훌륭한 기도문이 없기 때문이다.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전례에 쓰이던 기도문 150편을 수록한 책이다. 이 기도문은 현금(鉉琴, psalterion)이라는 현악기의 반주를 받아 노래로 불려졌다. 여기서 '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psalmos(라틴어 psalmus)가 나왔다.

시편은 한꺼번에 그리고 단시일에 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시편은 성사가 붙어가는 방식으로 대대로 손을 거치면서 붙어났고, 하느님이 당신 백성에게 계시를 내리시는 과정에 맞추어 시편도 많아졌다. 그래서 시편에는 구세사 전부와 계시 전체가 서려 있다.

현재 성서에 실려 있는 시편 150편은 다섯 권으로 분류되어 있다: 1권(1~41편), 2권(42~72편), 3권(73~89편), 4권(90~106편), 5권(107~150편). 이렇게 다섯 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각 권이 끝나는 마지막 시편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는 찬미받으소서..... 아멘. 아멘"이라는 영광송으로 끝맺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편은 그 시기에 담겨진 종교감정이나 논리적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즉 찬양시, 애원시, 감사의 시편, 순례자의 노래, 군왕시편(君王詩篇), 메시아적인 시편들, 지혜시편(智慧詩篇) 등등.

성서는 역사의 시작에서 마침까지 관통하고 온 세상을 비추고 있으면서 한사람에게 제때에 맞는 빛과 힘을 주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한다.

나는 30여년전 신약성서를 몇번 통독했다. 당시 20대였던 내게 성서는 하느님의 계시에 접하는 거룩함이었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 황홀함이었다.

그 후 10여년전에 성서 40주간 모임에서 친구약을 2년과정으로 배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서를 신학적이고 과학적인면으로 분석하게 되면서 삶과 접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성서는 내 영적 삶의 기초가 되어 주었다.

지난 2월, 사순시기를 맞아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매일 성서를 10쪽씩 읽고 묵상하기로 했다.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않고 실천하여 며칠후면 요한 묵시록을 마치게 된다. 이번에 마치게되는 성서통독은 건축물의 기초에 벽을 붙이고, 창을 달고 생활에 필요한 집기와 도구를 갖추는 것처럼 나의 영성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주고 있다.

성서를 여러번 읽었지만 그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른 것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성서가 주는 영향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본다.

성서라는 보물 상자에서 영적성장을 위한 덕품의 보물도 꺼내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의 보물도 꺼내고, 악과 맞설 수 있는 무기도 꺼내고,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기쁨의 보물도 꺼낸다.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야곱의 우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퍼주시는 예수님께서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98학년도 전주지역 가톨릭 유치원 원아모집

자 격 : 남·여 어린이 만 3세~98학년 취학전 아동
모집기간 : 11월 15일~12월 10일, 문의 : 각 지역 유치원

전주 성심	84-8347	익산 성심	858-4725	김제 원평성모	43-4236
진북	252-0384	성모	291-1520	고창 새별	64-3529
팔복어린이집	212-1618	금마성모어린이집	53-7931	남원 소화	33-4005
해성	445-8445	합열성심어린이집	861-2966	진안 소화	33-2293
군산 성심	43-2465	김제 성모	546-3788	무주 소화	322-2398
				부안 성심	84-1004

전통 폐백

폐백 전문
서 영 복(아네스)
중앙상가내
상가 (0652) 252-9221
자택 (0652) 84-4785

고려보석

금·은·시계
결혼 예물 전문
(목주반지 제작전문)
김 형 태(울리아노)
박 태 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전북은행 앞
☎ 82-9005

잠깐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희년
1997년, 예수 그리스도의 해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희년 준비를 위한 첫째 해 1997년,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7년은 “성령의 힘으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유에 바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제삼천년기 40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표, 인생의 궁극 목적을 향해 전세계 모든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로 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이해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모두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내가 그 대열에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잠시 멈추고 나를 보자. 과연 나는 지난 십여 개월 동안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봉헌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되고자 노력하였는가? 전세계 교회의 역사적 대행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나는 2000년 대희년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고 “나”도 2000년 대희년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교구·제 단체 소식

1. 성직자 묘지미사 : 11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치명자산 묘지
2. 군산 사회교정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 11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성당
3. 구역(반)장 교육(4차) : 11월 10일(월), 오전 10시, 군산지구, 나운동 성당
4.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 월 피정 : 11월 12일(수),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강사-이규철 신부(수원교구 지동성당 주임)
5. 운전기사 사도회 정기총회 : 11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동 성당
6. M.E 69차 주말 : 11월 14일(화)~16일(일), 천호 피정의 집
7. 성소후원회 임원 모임 : 11월 16일(일),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미사있음, 중식제공
8. 빈첸시오회 전주교구 이사 단합대회 : 11월 16일(일), 오전 10시, 전북 빈첸시오의 집
9. 군산지구 혼인강좌 : 11월 16일(일), 오후 1시 30분, 나운동 성당
10. 60주년 기념강연회 : 11월 10일(월), 오후 6시 40분, 가톨릭센터, 주최-가톨릭 교수회의
11.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11월 18일(화), 주제-그리스도인의 희망, 지도-김희남 신부
11월 22일(토)~23일(일), 주제-그리스도인의 죽음, 지도-김기곤 신부

요십이 (1265) 김병오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자격: 영세받은 지 3년 이상 23~40세 정도의 남·여
 때: 1997년 11월 16일(주일) 오후 2시
 곳: (광주) 성 골롬반 선교회관(남광병원 옆)
 문의: (02) 927-5760, (062) 371-5823

경일 조립식 건축

주택·교회·공장
 실내 인테리어
 일반 건축 토목

김 해 선(레미지오)

☎ (0652) 245-1611~2
 FAX 245-1610

김희민 정형외과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숲정이 익스프레스 이사짐

사다리차·인부대기·포장이사

251-2024
 ☎ (0652)246-2024
 223-2024
 이 한 주(토마)

민 속 떡 집

맛총떡·페백전문

이 종 술(미카엘)
 박 양 레(미카엘라)

☎ 84-4427

전주교묘 남부시장 입구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총각김치, 동치미, 백김치,
 돌산갓김치, 깍두기, 고들빼기
 재래식품-된장, 간장, 고추장
 김장김치-주문 받습니다.

(0652) 212-7442
 ☎ (0654) 452-4939
 (0653) 52-5300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너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조상님들의 삶을 본받읍시다!**

1. 모임 안내: ① 바오로회 - 교중미사 후 ② M.E 모임 - 10일(월) 후 8시 ③ 자모회 피경 및 정기총회 - 12일(화) 전 10시 ④ 성가대 정기총회 - 14일(금) 후 7시 ⑤ 울뜨레아 - 16일(주일) 교중미사 후
2. 사목회 정기총회: 오늘 교중미사 후, 성당앞
모든 제단체장님들의 무척으로 참석바람.
3. 성서 40주간: 매주 화요일 전 10시 30분에 성서교육 있음
4. 가정 방문: 12일(수) - 쌍용 1반, 13일(목) - 쌍용 2반
14일(금) - 오성 1반
5. 구역 모임: 반모임 및 형제회 모임에 꼭 참석바람.
6. 평일 미사: 미사에 정성을 다하여 많이 참석바람.
7. 초중고 교리교사 모집: 35세 미만의 미혼남녀 봉사바람.
8. 연도 대회: 16일(주일) 후 1시, 구역별 대회 있음.
9. 부녀부 판매물: 매주 주일 참가를, 미역, 김갈, 비누 판매
10. 특별 헌금: 금주 봉헌자 - 1명 50,000원, 많은 봉헌 바람.
11. 교무금 봉헌: 교무금 완납에 협조바랍니다.
12. 금주 전례: 해설 - 박영춘, 독서 - 정혜찬(로마노)부부
봉헌 - 엄재윤(토마스) 가정
13. 차주 전례: 해설 - 박수환, 독서 - 최 영(스페타노)부부
봉헌 - 엄재윤(토마스) 가정

□ 지남주 봉헌금: 1,467,750원 □ 교무금: 2,323,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너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용

◎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미"를 전달합니다!**

- ◎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오늘입니다.
1. 금주 모임: 울뜨레아 - 공식미사 후, 4회의실
2. 주간 모임: 성령기도회 - 11일(화) 후 8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꾸리아 - 공식미사 후 ※ 차주 - 교무금 납부일
4. 예비신자 성지순례: 오늘 공식미사 후, 천호성지의
5. 구역방문: 롯데A(11구역) - 11일(화), 10구역 - 12일(수)~14일(금)
6. 예비신자 배가운동: 환영식 - 30일(일) ※ 많은 인도 바람.
7. 전례자 모집: 해설, 반주, 독서자를 모집하오니 사무실에 연락 바람.
8. 감사!: '나눔잔치'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전일가정 환영: ① 최경란 T. 77-1208, 롯데A 105-306
② 유윤임 T. 75-5452, 신일A 102-811
③ 이윤희 T. 75-4885, 10구역 2반 ④ 김지미 T. 74-9124, 4구역 1반
⑤ 오민주 T. 252-4046, 3구역 2반
10. 성당부지헌금 신입 감사!: 김금영 10만
누계 - 271,050,230원(472세대)
11. 축! 혼인: 오늘 12시, 신랑 - 최일서(요한의) 장남 최석(이나시오)
신부 - 최병일의 장녀 최현옥
12. 독서: 금주(새벽) - ① 하중철 ② 김명희, 차주 - ① 오창석 ② 백복순
(공식) - ① 김용철 ② 최영희, 차주 - ① 정보성 ② 김 정
13. 미사 안내: 금주 - 새벽의 모후Pr., 차주 - 인자하신 모후Pr.

□ 지남주 봉헌금: 1,644,320원 □ 교무금: 2,895,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너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하느님의 도성을 강물의 줄기들이 지존의 거룩한 장막을 즐겁게 하**

- ◎ 새 성전 신축 위한 목주기도 봉헌: 소계 - 2,416만
누계 - 542,245만
- ◎ 위령성찰에 먼저 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1. 모임: ① 제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등산 - 오늘 1시 30분
③ 울뜨레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감사합니다!: ① 의사 탁자 기증 - 전성기업 윤대호 사장님
② 나무 기증 - 정성중, 전형직, 김정철
※ 유실수 기증바랍니다.
3. 새 성당 축성식: 12월 6일
※ 전신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회합실과 성당주변 정리에 모두 앞장서서 함께 합니다.
5. 다음주일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6. 새성당 의자: 1구좌에 80,000원 ※ 협조 바랍니다.
7. 금주 전례: 해설 - 광명실, 독서 - ① 이강운 ② 국혜원
8. 차주 전례: 해설 - 정희수, 독서 - 이종근 ② 강경자
9. 청소 봉사: 1, 2구역 전체

□ 지남주 봉헌금: 2,481,000원 □ 교무금: 1,315,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설 우
F A X 221-9842 수 너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하느님의 도성을 강물의 줄기들이 지존의 거룩한 장막을 즐겁게 하**

1. 금주 모임: ① 요셉회, 안나회, 반석회, 자모회 - 낮미사 후
② 사목회 워크샵
2. 음악 기초교실: 11일(화) 후 8시
3. 차주 모임: ① 성소후원회 임원단 모임 - 전 10시 30분, 교구청
② 상지원 봉사 - 낮미사 후
※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있음
4. 사목회 각 반과에서는 98년도 사목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무금과 신축헌금, 기타 후원금 등을 연말이 되기 전에 정리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이웃에 이사 오셔서 아직 성당에 안나오고 있는 신자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접수 바람.
7. 청소 봉사: 15일(토) - 동정 마리아Pr.
8. 폐품 정리: 15일(토) - 로사리오의 모후Pr.
※ 폐품을 가져 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9. 금주 전례: 새벽 - 광순옥, 낮 - 최경순, 저녁 - 정인자
10. 차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 지남주 봉헌금: 846,600원 □ 교무금: 1,627,000원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너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선

◎ **페루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오늘 있음**

- ◎ 우리 모두 선교에 최선을 다 합시다.
- ※ 본당 집중 선교기간: 97년 10월~98년 10월
- ※ 선교계획: ① 예비신자 인도 1인 1명이상, 쉬는 교우 회두 1인 1명이상,
거주불명자 확인 및 관리 1인 1세대이상
② 이웃돕기 계획의 실천
- ※ 나는 지금 본당 선교계획에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 ※ 선교 대상자 카드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① 안나, 요셉회 - 9일(일) 9시미사 후
② 선교특위 - 9일(일) 10시 30분미사 후 ③ 성모회 - 12일(수) 전
11시 ④ 성체회 위령성찰 피경 - 12일(수) 전 10시부터
⑤ 예루살렘회 - 15일(토) 전 11시
2. 차주 모임: ① 울뜨레아 - 16일(일) 후 8시
② 자모회 - 18일(화) 전 10시
③ 사회복지분과회의 - 19일(수) 전 10시
④ 청소년분과회의 - 21일(금) 후 8시
⑤ 꼬미시용 - 22일(토) 후 3시
3. 구역 미사: 13일(목) 후 8시, 거성국민A
4. 금주 성서통독: 신약복음(메살로니카 전후서)
5.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 봉사: 삼천주공2A 구역
6. '내친구들'과 '생활성서' 11월호가 나왔습니다.

□ 지남주 봉헌금: 1,215,450원 □ 교무금: 2,048,000원

호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너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원

◎ **성전 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 - 3,315만 단 누계 - 810,765만 단
- ◎ 축! 성전 봉헌식: 20일(목) 전 10시 30분
※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입니다(1 베드로).
1. 금주 모임: ① 사목회 전체회의(부장, 차장 전원 참석오망) - 저녁미
사 후 ② 애령회 감부총회의 - 공식미사 후 ③ 반석회 - 12일(수) 후
7시 ④ 자모, 성모, 성심회 - 14일(금) 전 10시미사 후
2. 애령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3. 성체 강복: 12일(수) 전 10시미사 후
4. 봉성체: 14일(금)
5. 성가 연습: 매주 월~금요일 저녁미사 후 ※ 많은 참석바랍니다.
6. 미납된 신축 헌금과 바자회 식권 대금은 속히 완납바랍니다.
7. 차주 모임: ①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음, 울뜨레아
② 중·고등부 학생 정기총회 - 학생미사 후
※ 중·고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람
8. 금주 전례: 해설 - 이한은, 독서 - ① 김영길 ② 오순자
봉헌 안내 - 황근용, 이후동 부부
9. 차주 전례: 해설 - 김용만, 독서 - ① 김영호 ② 강남주
봉헌 안내 - 임남규, 서쌍용 부부

□ 지남주 봉헌금: 1,842,910원 □ 교무금: 1,935,000원